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5호 【루계 제2526호】

주체108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음력 12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3호

주체108(2019)년 1월 24일

국가적인 추모의 날을 정함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남긴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이 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모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을 국가적인 추모의 날로 한다.
2. 해마다 7월 8일과 12월 17일에 조기를 띄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한 거족적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퍼진 뜻깊은 울림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로 승화된 격동적인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불태우고있는 이 시각 온 민족을 보다 큰 비약에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우리의 심장을 끓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우리모두 돌이켜보자!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과 련속적으로 펼쳐진 경이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온 겨레를 충격과 환희, 격정과 락관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던가.

내외의 지지와 격찬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세차례나 마련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여 북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여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감돌던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봄기운이 태동하였다.

북과 남은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였고 각계각층 동포들속에서 전례없이 고조된 통일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더욱더 북돋아주었다.

지난 시기의 몇년, 몇십년동안에도 이룩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 한해동안에 이룩된것은 세인들이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이며 경탄할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이 놀라운 사변적성과들은 북남수뇌분들의 확고한 북남관계개선의지와 그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족공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폐부에 깊이 새기였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있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적호소에 화답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변적인 해로 장식하려는 드높은 결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자!

북남관계개선을 멈춤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자!

해내외동포들은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한뜻이 되여 북남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격변하는 조선반도정세를 외면하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일체의 반통일적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살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2.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을 반대배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저지파탄시키자!

전체 조선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적대관계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하는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

3.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민족적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북과 남은 첫걸음을 뗀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해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다.

내외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남협력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자!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북남사이에 불신과 리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4.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될 민족사적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가자!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있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목표가 우리모두를 부르고있다.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중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관철을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주체108(2019)년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가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양형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과 억척불변의 통일의지,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맥동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 호소성으로 하여 전세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적인 립장과 제안, 그 실현방도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지난해 이룩된 고귀한 성과를 도약대로 삼고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 민족의 살길이 있고 겨레의 래일이 있다고 하면서 북남선언들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안고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선언관철을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근본담보이라고 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이 원칙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겨레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찾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각계각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최대의 민족적과제로 되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발벗고 나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단체들사이의 련대활동을 적극화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들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면서 마음과 힘을 합쳐 선언리행기운을 더욱 고조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같은 애국애족의 호소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으로 호응해나섬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려정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통일의 길에 쌓으신 크나큰 업적

분렬된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열망하고있다.

민족단합과 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고 념원이였다.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고 민족단합과 통일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8.15이후 남조선을 강점한 외세와 그에 추종한 민족반역세력의 매국배족적인 《단선단정》음모로 민족분렬이 고착될 위험이 짙어가던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수립을 바라는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타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라침판과도 같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겨레에게 안겨주신분도 수령님이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온 겨레는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였었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공동성명의 발표를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로 대서특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도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과 드림없는 의지가 어리여있다.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것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이였다.

이처럼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녘겨레가 있었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따뜻이 포섭하여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품을 찾아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각계층 동포들이 평양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었다.

1994년 4월 어느날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한 해외동포녀류기자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시겠는가고 말씀드렸었다. 그이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그에게 가슴후련하게 대답을 주시였다.

어느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시려는가고 말씀을 올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열렬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은 사람이라 해도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밀렸던 잠도 푹 자고 마음놓고 휴식도 하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나라의 정사를 론하실 때에도, 이른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불야경 이룬 건설장의 밤길을 걸으시여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그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써오신 수령님이시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우리 집안은 원래 머리가 잘 세지 않는데 나만은 머리가 많이 세였다고, 나의 머리가 이렇게 많이 세여지게 된것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덜어주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겠는가 하는 격정때문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오로지 애국애족의 일념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들은 오늘도 온 겨레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는 어떤 리론이 아니라 그이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라고 전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분이시기에 온 겨레는 그이를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며 한없이 그리워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세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온 겨레는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기어이 일떠세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주통일위업에 바친 고귀한 한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고귀한 헌신의 한평생이였다.

지나온 인류력사에는 명인들도 많았고 국경과 대륙을 초월하여 세인의 존경을 받은 위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며 시대와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통일애국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준은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통일번영이였다. 분렬의 비극속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삼천리강토우에 하루빨리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눈보라, 비바람을 많이도 맞으시고 험한 길도 수없이 걸으신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민족의 분렬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에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애국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창밖에 비가 내려도 조국통일문제로 잠 못 이루시고 명승지를 찾으시여서도 온 겨레가 복을 누릴 그날을 그려보신 그이이시다.

자주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신 그 나날중에는 자신의 생신날도 있었다.

주체64(1975)년 2월 16일 저녁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국통일위업이 간고하고 어렵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밤늦게까지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비상한 통찰력으로 남조선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해주시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뜻깊은 그날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은 쪽잠과 쉬기밥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의 나날에도 새겨져있다.

눈물없이 대할수 없고 격정없이 새길수 없는 그이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민족의 통일애국력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여올수 있었다.

언제인가는 이렇게 깊은 밤길이 조국통일에 가닿아있다면 나는 이제라도 백리, 천리를 더 가고싶다고 절절히 교시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쉬면 조국통일의 날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늘 외우시며 어쩌다 차례진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고 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

애국의 열과 정을 깡그리 쏟아부으시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한생과 고귀한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온 겨레는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평화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생산정상화라는 개념의 의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12월 어느날 원산구두공장을 네번째로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나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이 이제는 공장이 생산정상화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생산정상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정상화는 생산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계획 대 실적이나 수자상으로 맞추어놓는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라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라는 개념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인민들이 적극 선호하고 애호하며 제일 먼저 찾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미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신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 규정해주었다고, 인민의 미감에 맞는 고상한 색갈과 고상한 형태의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몸소 보내주신 지게차

주체106(2017)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지배인에게 애로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며 도와주겠으니 어서 제기하라고, 자신께서 공장에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가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지배인이 뻐스와 화물자동차를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자 자신께서 해결해주겠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영예군인들이 물동을 어떻게 나르는가고 물으시였다.

물동을 나를 때는 영예군인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지게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지게차도 자신께서 해결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후 공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륜전기재들이 도착하였는데 그속에는 지게차도 있었다.

본사기자

평화번영의 첫걸음을 더욱 굳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겨레모두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시고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도록 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의 호소에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하시려는 애국애족의 구상과 결심이 어리여있다.

기나긴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지난해의 격동적인 사변은 하늘이 준 기적도, 력사의 우연도 아니다.

온 민족이 페부로 실감하고 세계가 충격으로 들끓은 북남관계의 극적인 전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대범한 결단, 끊임없는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수십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이 비극을 하루빨리 끌장내려는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성원모두의 열망이고 의지이다.

겨레의 념원과 지향, 시대적요구와 절박성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항시적인 전쟁위험에 처하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장을 열어놓을것을 구상하신 그이의 비상한 결심과 통큰 결단,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불신과 대결로 차겁게 얼어붙었던 이 강토에 화해의 봄, 평화의 봄이 도래하게 되였다.

세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여 북남관계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 등이 참가하여 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북돋아주었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뜻깊은 공연무대도 펼치였다.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의미있는 첫걸음도 내짚었다.

북남관계의 극적인 변화, 대전환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마음을 합치면 조국강토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겨레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온 강토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 나날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 소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시였다.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을 만나시고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온 한해동안 그이께서는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결실을 새싹처럼 소중히 여기고 훌륭히 자래워 풍만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와 강렬한 애국의지,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치여지게 되였다. 조국강토에 달아오른 단합열기, 통일열풍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열기, 칭송열풍으로 이어지였다.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시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멈춤없이,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북과 남이 함께 가는 새로운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길에서 평화와 통일번영의 문은 열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데 대한 문제 등 올해 북남관계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온 겨레가 용기백배하여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하여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첫걸음,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비범한 령도에서 겨레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박진혁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공예 《말탄 무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몽골정부군사대표단이 주체102(2013)년 7월 27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올린 선물이다.

몽골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인 몽골국방성 부상 아비르메드 바뜨터르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 몽골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을 선물하는 오랜 풍습이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에 대한 우리 대표단성원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정중히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몽골국방성 부상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이름난 수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선물에 형상된 장수는 전형적인 기마무사로서 백마를 타고 기본무장인 장검과 활을 차고있으며 금속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있다.

공예품의 길이는 355㎜, 너비 190㎜, 높이 407㎜이며 가죽, 나무, 섬유, 금속, 수지, 유리로 만들었다.

본사기자

수필

인파심리

문명은 인류력사의 전 과정에 사람들이 갈망한 리상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제나름의 문명을 자랑하며 문명의 《표본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있고 오랜 문명의 전통을 긍지로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있다. 보다 잘살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싶은 인류의 념원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문명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문명을 창조한 인민의 피와 땀은 있건만 그것을 탄생시킨 인민이 향유한 흔적은 많지 않다.

하다면 인민을 위한 진정한 문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8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TV와 신문에서 뵈웠던 때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한적하고 이름뿐이였던 명사십리가 곧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의 십리해안으로 전변될것이라고, 앞으로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나의 귀전에 들리는듯싶다.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이것은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게 하시려 삼복철의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초강도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태여난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시대어, 그이의 애민헌신이 낳은 시대어라고 할수 있다.

폭열과 폭양을 피해 사람들이 피서지로 향할 때 그이께서는 조국땅의 방방곡곡을 일행천리 주름잡으시며 초강도강행군길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가시였다. 조국땅우에 더 아름다운 문명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려고 그리고 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인민을 그려보시며 달리고 또 달리시면서도 그것을 고생이 아니라 락으로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대자연은 폭양과 폭열을 사방에서 뿜어올리였지만 그이께서는 그속에서, 아직은 건설중이여서 모든것이 어설픈 곳에서도 문명의 래일을 남먼저 내다보시였고 인민의 웃음소리도 그 누구보다 앞서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응축되여있는 이 새로운 시대어와 더불어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있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새라새로운 문명의 대명사들이 또다시 태여나게 될것이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솟아날 산간문화도시와 경성군에 일떠설 온포온실농장에서도, 양덕군의 온천지구에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인파십리가 늘어날 환희의 그날을 그려보며 공화국의 인민은 희망찬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천지개벽된 그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릴 그 시각을 앞당겨오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령도자의 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보폭을 맞추고있다.

나는 확신한다.

문명의 새로운 시대어들과 어울릴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 땅우에 치솟은 그때에 세계가 더욱 경탄에 찬 눈길로 공화국을 우러러보게 되리라는것을.

강영성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성과들에 토대하여 올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할 신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그자체에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끊어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북과 남은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쳐나갈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단합의 기운을 고조시켜나갈수 있다.

지난해에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끌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과감한 실천적조치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확약하였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이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마땅히 나라의 분렬로 하여 빚어지고있는 겨레의 고통을 가셔주고 민족의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였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나아간다면 외부세력의 온갖 방해책동도 물리치고 북남관계발전을 계속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다.

북남협력과 교류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확약하였다.

지금 북남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방해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향한 힘찬 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에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김 명 진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시련, 장애와 난관들을 과감히 극복하고 우리 겨레가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굳게 손잡고나가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해 북과 남은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하고 세계앞에 천명하였다. 하여 분렬과 적대의 관계로 치닫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웠다. 북남사이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어져 겨레를 기쁘게 해주었다.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사업들이 추진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뜻과 지혜를 모아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지난해의 극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은 우리 겨레에게 민족의 단합된 힘은 무궁무진하며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면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북과 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굳게 손잡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폭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리념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성과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민족의 단합된 힘과 민족번영의 래일에 살려는 우리 겨레의 힘찬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진리로 체득하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북남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겨레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고있다.

온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자랑스러운 경륜과 전통을 살려 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그 억센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번영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며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 일 혁

남 조 선 단 체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를 실현해나갈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평화비경기련대가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이번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보장을 바라는 겨레의 소원을 내외에 알리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해나갈것을 그들은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남선언리행에 평화번영의 미래가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을 명확히 밝힌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선언들에는 북남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현실을 통해 뚜렷이 립증되였다.

지난해 북남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마련되여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남관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통일위업을 새롭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전횡을 허용한다면 북과 남이 확약한 선언들이 빈종이장으로 될수 있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물리치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조선민족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리행하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범민련 남측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통일운동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정당 및 시민단체대표들의 참가하에 《〈한〉반도평화와 번영,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이라는 신년회가 열리였다. 행사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올해에 각계각층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다양한 선언리행운동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사회적여론을 확산시키고 내외분렬세력들의 방해책동에 맞서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열의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용기백배하여 투쟁함으로써 올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힘도 그 민족자신에게 있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조국통일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찾고 새긴 진리가 바로 북남관계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고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안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해에 채택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정신과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북남관계문제를 제대로 풀수 없다.

곡절많은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한다면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장애와 난관만 조성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단체들과 인민들이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외세가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다고 폭로단죄하면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고 투쟁이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온 겨레가 마음과 힘을 합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가 18일 서울의 광화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올해에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발언자들은 조선반도 번영과 평화통일의 시대에 청년학생들의 역할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개성에서, 금강산에서, 평양에서!》라는 구호를 현실로 앞당기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훌륭한 미래를 청년학생들의 손으로 열어나가자면 열심히 뛰여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어 단체는 결의문을 랑독하였다.

결의문은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펼쳐진 대전환의 국면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국민과 청년학생들의 열망도 뜨겁게 분출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분단적폐세력이 여전히 남북의 화해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관계개선을 막아서고있지만 청년학생들은 통일의 리정표인 남북선언들을 고수리행하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싸울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결의문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여 개성과 금강산에서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만나자면 《5.24조치》가 해제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만이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면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아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어내자.

이 땅의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의 주역답게 단결된 힘으로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최근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리행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국민주권련대》도 그러한 단체들중의 하나이다. 이 단체는 2017년 8월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외세의 부당한 간섭저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북남공동선언리행 등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결성한 각계층의 련대조직이다.

지난 15일 《국민주권련대》는 현 《정권》이 북남관계에서 《비자주적이고 비자립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를 재개하지 못하는가, 《5.24조치》철회를 내들었다가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해제하지 못하는가, 북남사이의 철도, 도로련결착공식을 해놓고도 왜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있는가 등 5개 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당국에 보내였다.

21일에는 《국민주권련대》를 포함하여 13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진 《백두칭송위원회》가 광화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일의 근본장애물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미국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종이비행기형태로 미국대사관경내에 날려보내였다.

남조선의 시민단체들이 새해에 들어와 이처럼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은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

북남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온갖 외풍과 역풍을 물리쳐나가야 한다. 북남합의들을 실천하는데서 우리 민족끼리의 대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조선반도에 언제가도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깃들수 없다.

삼천리강토우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안아오기 위해서는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동족대결적인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외세의 침략적인 전쟁장비반입을 저지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온 겨레가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시기 남조선 당국자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제재를 통한 북비핵화》타령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굴한 대미추종정책의 산물, 북남관계를 《〈한〉미동맹》의 종속물로 만들려는 위험한 기도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절세위인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왜 북에만 비핵화조치를 계속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가, 비핵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차례는 미국이 아닌가고 하면서 공화국의 성의있는 조치에 상응하게 미국이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서 조미공동성명을 바로 리행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남조선의 국우보수패당의 반통일망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우보수패거리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대결과 적대의 어두운 과거로 돌려세워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런 극악한 친미사대역적, 반통일광신자, 파쑈폭군들을 매장하고 새 정치,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인 보수적폐청산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은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향한 민족사적흐름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응당하다.

《국민주권련대》를 포함한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힘찬 투쟁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추동할것이다.

리현호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

지난해에 있은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장장 70여년에 걸치는 조미대결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이였다.

6.12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지난해에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가 보다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조미관계에서도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대화상대방이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옳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수립 등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 나아가 세계평화에 대한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은 세계언론계가 지난해를 총화짓고 새해를 맞으며 일치하게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을 《2018년 최고뉴스》로 크게 떠든 사실 하나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온 세계는 지난해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세기적인 악수》로 격찬하면서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이 충실히 리행되여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에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세인의 지향과 요구와는 어긋나게 정세를 긴장시켜 저들의 리익을 얻어보려는 반평화세력들의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여전히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못하고있다.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서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대결을 추구하는자들은 조미관계개선을 두려워하며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내외의 호전세력들이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를 구축하는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되게 6.12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밝혀진대로 조미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여야 한다.

김현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계획의 철회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8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평화초불추진위원회가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계획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당국과 미국이 《맞춤형억제전략》과 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담은 《작전계획 5015》실현을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립장을 표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것은 6.12싱가포르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으로서 남북대화와 북미관계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는짓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당국의 합동군사연습재개책동은 북에 대한 공세적, 적대적성격이 변함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결추구와 적대적인 합동군사연습재개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합의에 따른 북에 대한 제재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8일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4.3봉기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서울, 인천, 전주 등 전지역의 형무소에서 최대 20년까지 감옥생활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불법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심에 부합되는 의로운 정치활동을 벌려야

오늘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고있다. 통일에 대한 겨레의 관심과 기대도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오늘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며 요구이다.

이런 속에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조선정치인들의 활동도 민심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현실을 바로 보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사회적질곡인 보수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고 민주화의 길을 넓혀나가며 민족적화해를 위한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는 정의로운 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의 민주평화당이 당국과 주요정책적문제들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민간인사찰의혹과 민간기업의 사장교체압박의혹 등을 현 《정부》의 《국정롱단사태》로 규정하고 특검도입과 《국정》조사를 내드는가 하면 당이 새해에 들어와 반〈정부〉행보를 보이고있다.》, 《범여권공조에 균렬이 생기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적인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보수패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대립과 분렬적인 행동을 걷어치우고 뜻과 힘을 합쳐 초불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을 지켜낼것을 요구하고있다.

국우보수언론들과 보수야당패들이 내돌리고있는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둘러리》, 《여당의 2중대》라는 여론도 범민주개혁세력의 분렬을 조장하기 위한 교활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보수대통합을 떠들면서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는 때에 민주개혁정당들이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북남사이에 좋게 발전하는 긍정적흐름을 말아먹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친재벌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롱락하고 도탄에 빠뜨렸으며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경제와 민생을 파국적위기에로 몰아간 보수패당의 죄악에 찬 행적을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현실을 바로 보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민심의 이 요구를 똑바로 명심하고 보수패당의 부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합심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범민주개혁세력의 단합에 민주화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북남관계발전도 있다.

한광일

시

앞날이 없다

김영일

시대의 《명물》들이
모두 모여 우글거리는 《자유한국당》에
기생오래비같은 《명물》 또 하나 기여 들었다
걸은 미끈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세간의 조소받는 인격미달자가

기신기신 찾아드는 《손님》
어랍쇼 이게 누구냐
초불바다 민심의 심판 잽싸리 피하여
구차하게 목숨이나마 부지한
《국정롱단》의 주범, 공범자 《황교활》 아니냐

어이구 이젠 다 됐구나
손가락질 하는가 하면
그래선 못쓴다 쌍손 들어 반기고
두고봐야지 일단은 입 벙끗 안하는 등
《자유한국당》집안 소란도 하다

무리의 영상을 바꾸어보자고
《인적쇄신》, 《보수통합》 모지름 쓰건만
하는짓은 온통 구린내나는것이여서
찾아드는것은 모두 이런 《명물》들뿐
당연하지 당연해
초록은 동색이라 하지 않느냐

당권과 대권 잡을 흉심 품고 기여든것은
미꾸라지 룡꿈 아니던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아
손가락질 받는 둘도 없는 《황교만》

《황교활》, 《황교만》
제가 저지른 죄행은 생각지도 않고
파렴치하게도 하늘의 무지개를 잡을 꿈을 꾸건만
그것은 한갖 신기루

《도로박근혜당》, 《국정롱단정당》의 벙거지
또 하나 얻어쓴 악취풍기는
《자유한국당》엔 앞날이 없다
민심은 이미 파멸의 선고를 내렸다

미몽에서 깨여나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조미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여러가지로 분석평가하면서 더이상 존재명분을 상실한 대조선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각국의 인터네트들에는 《조선은 응당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조선에 대한 제재자체가 국제적인 실수이다.》,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조선이 조선반도정세를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등의 글들이 련속 오르고있다.

로씨야외무성 조선반도문제담당 특임대사는 자국언론과의 회견에서 조선이 일련의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오지만 미행정부는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대조선경제제재완화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전문가들인 국가리익센터 국방연구소장과 웰링톤 빅토리아대학 국제관계학 상급교수도 잡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문을 발표하여 미국이 조선의 의중을 정확히 리해하고 제재를 완화할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가 평화와 안정에로 전환되고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의 반영이다.

국제사회계가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시대착오성을 신랄히 비평하고 당장 걷어치울것을 주장하는데는 타당한 리유가 있다.

대조선제재책동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완전히 봉쇄하여 경제전반을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종당에는 제도압살을 이루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흉심의 발로이다.

1954년 제6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9항에는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1933년 런던조약과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처럼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대상으로 강행하는 제재압박소동은 그 목적에 있어서나 국제법상요구에 비추어볼 때 그자체가 비법적이고 완전히 침략적이다.

더우기 제재를 받고있는 공화국은 지난해에 북부핵시험장폐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선의의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적대세력들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운운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였다.

오늘 조미 두 나라가 뿌리깊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지향이다.

이러한 때에 아직까지도 케케묵은 제재타령을 불어대는것은 대낮의 부엉이처럼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에 《세기적인 악수》로 세인의 찬탄과 기대를 모았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후 조미협상이 반년동안이나 공회전하며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은 바로 허황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주장때문이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하는자들은 하나같이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두려워하는자들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관계개선, 비핵화와 제재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한 리치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이 완전히 무익한 결과들을 낳고있는 지금에 와서 그 전철을 계속 밟자고 부르짖는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이 지각있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반공화국제재의 무맥함은 이미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였다.

반공화국제재압박을 고집하는 세력들은 조선의 선제적인 노력에 상응한 실천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허황한 제재압박의 미몽에서 깨여나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족의 피가 흐르지 않는 역적무리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2018국방백서》에서 공화국에 대한 《주적》표현을 삭제한것을 놓고 《안보해체나 다름없다.》, 《적을 삭제한다고 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고 고아대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남조선군부가 《2018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공화국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은것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좋게 발전하는 오늘의 북남관계흐름에서 볼 때에도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이 조선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로 확약하고 나아가고있는 지금 《주적》타령은 시대착오적인것이다.

그런데 구데기는 썩은 물만 생각한다고 동족대결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이를 놓고 《〈정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로 분석하면서 악담질을 해대고있으니 참으로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껏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한짓이란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위험만 고조시켜온것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눈만 뜨면 동족에 대한 악담질로 시간을 보내고있으니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떠들어대는 망발들은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짧은 기간에 이루어놓은것을 배아파하면서 민족사의 이 도도한 흐름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조선반도에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기류가 세차게 흐르고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지금 서로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열의에 넘쳐있다.

《2018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이 삭제된것을 놓고 보수패당이 부리는 낯뜨거운 추태는 동족대결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추악한 본색만 스스로 드러낼뿐이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악질보수패당의 대결망동은 응당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한다.

홍춘성

만평

망조

현 정세흐름에 배치되는 군사적움직임

남조선군부가 오는 3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 2대를 들여와 4월부터 5월사이에 실전배치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안에 10여대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과 미군당국의 실무진이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을 3월 4일부터 열흘동안 실시하기로 잠정확정하였다는 여론도 나돌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사단급의 《대침투 및 대테로훈련》이 진행된데 이어 남조선강원도와 전라북도지역에서는 련단급, 사단급의 《혹한기전술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을 지향해나가고있는 현 정세흐름에 배치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 아닐수 없다.

오늘의 북남관계가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도,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될것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나타나고있는 군사적움직임은 겨레의 이러한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것이다.

사실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를 들여오려는것은 공화국의 반항공망을 뚫고 주요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놓으려는것으로서 박근혜보수 《정권》이 2014년 대북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해오던것이다. 2021년까지 무려 40대나 되는 스텔스전투기 《F—35A》가 남조선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과거 보수 《정권》이 벌리던 무력증강책동의 연장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이나 사단급, 련단급에서 벌어지는 《대침투 및 대테로훈련》, 《혹한기전술훈련》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군사연습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켜온 주요 근원들이였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스텔스전투기와 같은 전쟁장비들이 들어오고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들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적대관계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과거 동족대결에 날뛰던 보수 《정권》들은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고 종당에는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였다.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면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 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과학기술을 전략적자원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온 나라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 자립경제발전의 척후전선인 전력공업부문과 석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의 주체화실현에서 련일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철강재와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에서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여나갈 때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적과 혁신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자원이고 무기라고 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제1생산력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지난 시기의 전통적인 자원들을 대신하여 기본생산자원으로 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과학기술적진보가 이룩될수록 사회주의전진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였기에 공화국은 그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시련을 헤쳐오면서도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하여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공화국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 하는것은 최근 몇해사이에 훌륭히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리고 멋들어진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상점을 비롯하여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휴양시설들, 봉사시설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 국가건설에서 과학과 교육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여기에는 과학과 교육에 더욱 힘을 넣어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국제사회계는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강대한 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격찬하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휘황찬란하게 변모될 조선의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은 가까운 시일내에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려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에서도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는 글을 올렸다.

앙골라창의고안가협회 총서기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조선이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어떤 제재의 바람이 계속 불어도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힘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경제건설대진군을 가로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 철

광명을 안겨준 사랑의 품

사람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눈은 소중하다. 얼마전 9년세월 앞을 못 보던 한 소년이 광명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자강도 시중군에서 살고있는 김국권소년은 태여나서부터 선천성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백내장이라고 하면 눈알의 수정체가 흐려져 생기는 병을 두고 말하는데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물체의 륜곽이나 겨우 가려볼수 있다고 한다.

손더듬을 하며 집안에서 맴도는 어린 자식의 모습은 그의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가정에 희망의 빛이 따사로이 비쳐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눈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가 일떠서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꿈같은 소식이 그가 살고있는 마을에도 날아들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국권이는 류경안과종합병원 소아안과에 입원하여 눈치료를 받게 되였다.

소아안과의 의료일군들은 국권이의 눈상태와 그에 따르는 치료대책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김철민과장은 자강도에서 먼길을 찾아온 국권이를 사소한 불편이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자고 호소하였다.

이렇게 되여 국권이는 과에서 제일 해빛이 잘 드는 호실에 들게 되였고 의료일군들의 남다른 관심속에 생활하게 되였다. 간호원들은 저마다 국권이의 옷을 빨아 다려주거나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주었고 한 간병원은 그가 소화기계통이 약한것을 알고 끼니때마다 영양죽과 별식을 만들어주었다.

곧 집중적인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국권이에 대한 수술은 인공수정체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의료일군들은 수술후 자그마한 후과도 생기지 않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수술후에는 영양상태가 좋아야 한다면서 닭곰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가져다주군하는 의료일군들의 따뜻한 정에 받들려 국권이는 마침내 부모도 못 준 광명을 찾게 되였다.

맑은 눈동자로 좋아라 뛰노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부모들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정말 고맙다고 거듭 외우는 국권이의 부모들에게 의료일군들은 병원에 깃든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액정TV와 랭동기를 비롯하여 환자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꾸려진 호실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콩우유차, 매일 식탁에 놓여지는 별식들과 눈에 좋은 보약들, 훌륭하게 꾸려진 식사실에 매끼 공급되는 영양식사에 대하여.

의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그대로 밝은 빛이 되여 국권이가 광명을 찾을수 있게 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국권이의 아버지는 두팔과 한다리가 없는 특류영예군인이다. 만일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불구자로 천대와 멸시에 시달릴 그런 가정에서 태여난 자식이 현대적인 병원에서 값비싼 의료봉사를 그것도 돈 한푼 안내고 마음껏 받으며 광명을 찾을수 있었겠는가.

하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폐부로 절감한 국권이의 아버지 김영일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사랑의 품에 안겨 저의 아들이 광명을 찾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입니다.》

본사기자 김진혁

선거제도에 비낀 판이한 모습

얼마전 공화국에서 주체108(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데 대하여 보도되였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선거가 진행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국가정사를 론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사회주의헌법 제66조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선거할 나이의 공민은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선거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고 또 누구나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선거자들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선거하며 투표할 때나 투표한 이후에도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하고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여 국가의 정사를 론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는것은 공화국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돈이 정치참여의 절대적조건으로 되고 돈이 없으면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도 향유할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광경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서방의 한 출판보도물은 이러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선거는 일부 사람들의 오락으로 되였다. 많은 조사결과는 정책작성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재산정도와 관계되며 70%의 사람들은 수입수준과 재산 등 측면에서 렬세한 자리에 있는것으로 하여 정책작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뿐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나 같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과 1%에 불과한 부자들이 정책작성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였던것을 얻을수 있다.》고 썼다.

실제로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뿌리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자리에도 올라앉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의 선거장들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노르웨이 트라비크예술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비크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명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고 자기의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딸리아 이렐코기술대표단 성원 부루베오 미켈은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가 감동적이라고, 많은 군중들로 흥성이는 선거장을 처음 본다고 하였다.

재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 홈페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중 로동자가 12.7%, 협동농장원이 11.1%, 녀성이 16.3%를 차지한다.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약육강식의 대결장, 온갖 사기와 협잡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도와의 차이는 말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날이 사회적불안정을 주고 불신과 대립으로 이그러진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날이라면 공화국에서 선거날은 남녀로소모두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경사로운 명절로 되고있다.

고마운 조국에 보답할 마음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각지의 인민들이 삼지연군건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들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함흥시 동흥산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원석, 유설희부부도 있다. 이들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살다가 근 30년전에 공화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전 우리는 김원석, 유설희부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큰 키에 혈색이 좋은 김원석로인이 나와 우리를 맞았다. 우리가 통일신보사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안주인인 유설희녀성에게 기자들이 왔다고 알려주며 반갑게 손목을 잡아끌었다.

로당익장이라고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한 김원석로인이며 젊은 시절의 미모가 엿보이는 유설희녀성을 대하느라니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그래서인지 초면이지만 친근감이 더했다.

크고 널직한 방안에 들어서니 《지원물자》라고 씌여진 지함들과 갖가지 물건들이 가득 놓여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김원석로인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가지고갈 지원물자들을 마련하던 참이라고 알려주었다. 알고보니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아가고있는 이들부부였다.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원석로인은 올해에도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겠는가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자면 멀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조선에서 김원석은 관광주식회사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한 필사의 몸부림속에서 홀러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직업상 여러 나라들을 다니는 과정에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 대하여 알게 된 그는 같은 회사에 있던 유설희녀성과 함께 그토록 동경해마지 않던 공화국에 새 삶의 닻을 내리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는 속담그대로 직접 보고 체험한 공화국의 현실은 자기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다.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끄는 미덕의 화원을 이룬 모습은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도시와 벌방, 두메산골 그 어디를 가보아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명랑함과 기쁨, 긍지가 넘쳐 흐르고있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복받은 이들의 생활은 꿈만 같이 홀러갔다.

그러던 이들부부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였다. 남쪽에서 얻은 김원석로인의 척추병이 그만 도지였던것이다. 시일을 끌면 운신할수 없게 되리만큼 병상태는 위급했다.

하지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김원석로인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유능한 의료집단의 집중치료를 받고 마침내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다. 그후에도 경치좋은 곳에서 료양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그였다. 료양소에서 생활하던 나날 진귀한 보약들과 몸보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들고 오기도 하고 시집올때 장만해온 따스한 이불도 가져와 덮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자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였을가 생각하며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군 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소망대로 상업봉사부문에서 일해온 유설희녀성은 상점의 책임자가 되였고 아름이 벌게 안겨주는 조국의 사랑에 대를 이어 보답해가자고 《아름》이라고 이름지은 딸도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과학자로 성장하였다.

진정 이들가정이 공화국의 품에서 받아안고 누려온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열밤을 새도 모자란다.

하기에 고마운 조국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싶어 이들부부는 고산과수종합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지성어린 마음을 바쳐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원석로인은 말하였다.

《저희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려세워준 고마운 조국의 품을 떠나 우린 못삽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렵니다.》

말은 소박했으나 깊은 의미가 담겨진 그의 말을 새기며 우리는 이들부부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홍범식

활발히 벌어지는 대중체육활동

공화국에서 새해에도 대중체육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보도된것처럼 지난 13일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집단달리기, 건강태권도, 대중률동체조, 바줄당기기, 롱구, 배구, 스키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진행되였다.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에 이어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가 진행되였으며 평양시체육촌에서는 시급단위들의 태권도 시범출연에 이어 축구, 롱구, 배구경기가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롱구, 배구, 탁구 등 체육경기들이 활기를 띠고 벌어졌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벌어진 롱구경기는 아슬아슬한 빼몰기와 멋진 먼거리투사로 응원자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배구경기장은 강하게 때리기한 공을 받아 멋진 후위타격을 성공시키는 선수들과 그에 못지 않는 응원열기로 후더웠다.

개선문광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유희오락경기들 역시 참가자들과 응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이렇듯 온 나라가 체육으로 흥성이는 풍경은 날로 높아가는 대중체육열기를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중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지난해만 보아도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제23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제6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 전국학원원아들의 체육경기—2018,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체신부문),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 민족체육경기대회,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도 진행되여 구김살없는 장애자들의 밝은 생활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올해에도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많은 대중체육경기들이 진행될것이 예견되여있어 벌써부터 그 준비사업들이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1)

얼마전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이 선정되였다. 통일신보편집국은 이번호부터 금메달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을 소개한다.

1. 세계적인 력기강자 엄윤철

압록강체육단의 력기선수인 엄윤철은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4중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로동자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체육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축구를 배웠다. 그후 력기를 배우는 누나의 영향을 받아 력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나라에서는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릴 꿈을 안고있는 그를 압록강체육단으로 불러주었다. 전문체육단에서의 훈련과정에 기록갱신의 토대를 하나하나 갖추어나간 엄윤철선수는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내경기들과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2012년 7월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우승후보자로 지목되던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를 물리치고 추켜올리기에서 올림픽새기록을 세웠다.

그후 엄윤철선수는 세계력기선수권대회들에서 련속우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으며 국제경기들에서 기록을 갱신하여 세계적인 력기강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2.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리세광

리세광선수는 4. 25체육단의 기계체조선수이다.

그는 세계체조계의 한페지를 당당히 차지한 리송섭, 리철헌, 김광숙, 박경실, 리정성선수들처럼 2010년대에 조마운동에서 조선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체조동작을 완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체조강자로 이름떨치고있다.

리세광선수는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이다.

과학자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우며 기초기술동작들을 련마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이룩한 경기성과를 귀중히 여기시여 엄윤철선수를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그가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엄윤철선수는 지난해에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남자력기 55kg급경기에서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성적에서 모두 1위를 하고 또다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그는 앞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 사랑과 믿음에 우승의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각오를 안고 리세광선수는 강한 훈련부담을 완강하게 이겨내며 자기의 특기를 끊임없이 련마하여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기계체조 남자조마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하여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의 값높은 영예를 받아안은 리세광선수는 지난해 11월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명명된 난도높은 《리세광동작—1》과 《리세광동작—2》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확고한 점수차이로 이 종목에서 당당한 패권자가 되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흥국사탑은 개성시 자남동 흥국사터에 있던 고려초기의 돌탑이다.

현재 개성시 방직동에 있다.

이 탑은 애국명장 강감찬이 1021년에 나라의 안전을 기원하여 세운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탑은 본래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평면정방형의 5층탑이였다.

지금은 탑의 기단과 1층 탑몸, 3개의 지붕돌이 남아있다.

기단 한변의 길이는 1.71m이고 탑의 현재높이는 2.61m이다.

기단은 바닥돌과 밑돌, 몸돌, 갑돌로 구성되여있다.

밑돌과 갑돌에는 16개의 련꽃잎이 마주보게 돋쳐있고 몸돌의 네모서리에는 기둥이 돋쳐있다.

기단몸돌의 남쪽면가운데에는 탑을 세우게 된 동기와 세운 사람의 이름, 건립날자가 새겨져있다.

탑몸돌은 통돌인데 남쪽면에 문과 자물쇠가 조각으로 묘사되여있다.

이 탑은 조형수법이 간결하면서도 부분호상간의 비례관계가 조화롭게 되여있어 안정감을 준다.

홍국사탑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돌가공기술을 보여주고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건강에 좋은 용천혈자극

용천혈이란 뜻풀이를 하면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혈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혈을 늘 자극하면 로쇠를 예방하며 혈압을 떨군다.

이 혈은 발가락을 제외하고 발바닥길이를 3등분한 앞 1/3부위의 중심 즉 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리면 발바닥이 얕게 들어가는 곳에 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가지 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은 물론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한쪽무릎에 다른쪽발을 올려놓고 발바닥이 웃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용천혈을 두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힘주어 누른다.

이렇게 매일 하면 3~6개월후에는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나무마치같은것으로 매일 30번정도씩 용천혈을 두드리면 혈압이 놀랄 정도로 떨어진다.

아침과 자기 전에 용천혈을 자극하면 머리가 거뜬해지고 잠이 잘 오며 늙은이들의 기억력감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피곤이 몰렸을 때 용천혈을 자극하면 피로가 쉽게 풀린다.

본사기자

묘향산 8경

묘향산8경은 묘향산의 8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탐밀만취(탐밀봉의 사철 푸른 나무가 늦은 가을에도 푸르러있는 풍경.)

탐밀봉은 봉우리들가운데서 봄기운이 제일 먼저 찾아들며 향나무와 소나무가 많아 향기그윽하고 겨울에도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

심진송객(심진정에서의 손님마중과 배웅.)

묘향산탐승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나기때문에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바래주는 광경이 볼만 하다는 뜻.

불영완월(불영대에서의 달구경.)

맑게 개인 8월 한가위날 밤에 돛대봉너머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양을 보는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

인호완폭(인호대에서의 폭포구경.)

상원동의 인호대에서 여러 폭포들을 한눈에 바라보는 멋이 매우 좋다는 뜻.

금강완어(금강못의 물고기구경.)

금강못에서 물고기들이 꼬리치며 노는 모습을 보는것이 아름답다는 뜻.

설령귀운, 백운단풍(설령대의 구름돌이와 백운대의 단풍구경.)

설령대에 올라서서 산허리를 휘감고도는 띠구름을 보느라면 마치 자신이 구름을 타고 도는것처럼 느껴진다는 뜻과 전망대인 백운대에서 보는 묘향산의 가을풍치가 웅장하고 수려하다는 뜻.

단군락조(단군대의 저녁노을.)

만폭동골안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산중턱에 단군굴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저녁해 지는 광경이 황홀하다는 뜻.

봉두만폭(봉두에서의 만폭동의 폭포구경.)

봉두에 올라 폭포들을 구경하는것이 일만폭포의 천만가지 재주를 보는듯이 황홀하다는 뜻.

본사기자

사화

개성고추장 (4)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장씨는 두 늙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 부지런히 주걱질을 하였다.

그날밤 장씨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들수가 없었다.

《여보, 할아버님 하신 말씀 들었지? 솔치가 구수하다고…》

근달이 장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스레 말했다.

《저를 위안하자고 한 말씀이시와요.》

《모르는 소리. 아, 우리 할아버님이 직방치기라는걸 몰라?》

장씨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글쎄 저녁상에 가까스로 일어나 마주앉은 시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아이적에 솔치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걸 달래서 맛있게 잡수신것이였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했던지… 장씨는 밥을 태우면서까지 속궁냥한걸 당장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여보, 날 좀 도와주시와요.》

장씨는 용단을 내려 일어나앉았다.

《뭔데?》

《설날에 색다른 반찬을 올리자고 하나이다.》

《그것때문이라면 그만두겠소. 식솔많고 가난한 집안의 일을 다 말아 언제 한번 허릴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당신이 그만큼 어른공대를 했으면 만족하지 무얼 더 하라겠소?》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온전한 손발이 없어서 량반들 보란듯이 어른공대를 하지 못하겠나이까. 우린 어떻게 하나 할아버님의 입맛을 돌려드려야 하나이다.》

근달은 그만 안해의 절절한 말에 감격하여 장씨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생각했소. 자, 무엇이든 말만 하오.》

밤은 깊었건만 장씨와 근달은 부엌문을 꼭 닫고 소리가 날세라 찰떡을 쳐서 길금가루를 뿌린 다음 한동안 절구질을 하다가 소금과 고추가루를 넣고 또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을 하면 할수록 새빨간 빛이 우러나와 떡반죽은 보다 더 먹음직스러워졌다.

《여보, 군침이 도는군. 보나마나 세상에서 제일 맛나는 반찬이 될거야.》

《제발 이것이 할아버님을 일으켜드릴수 있다면 한이 없겠나이다.》

《이제 하늘이 당신마음을 알아준다니까.》

량주는 정답게 속삭이며 새빨간 떡반죽을 하얀 백항아리에 넣고 바람이 들세라 뚜껑을 꼭 맞추었다.

동전만 한 흰눈이 소리없이 내려앉는 설날이 왔다.

온 마을이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고 흥성이는 이 아침 김씨네 집에서도 열한식구가 모두 안방에 모여들어 《할아버님, 백년을 장수하시고 백년을 또 앉아계십시오.》라는 인사가 있었고 이어 음식상이 차려졌다.

상우엔 비록 량반부자네 집에서처럼 육붙이는 없었으나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빛갈이 고왔다.

병색이 짙은 시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떡이다가 상가운데에 놓인 하얀 접시우에 새빨간 반찬을 가리켰다.

《아가, 이건 첨 보는것 같다.》

《에그 령감, 다섯아들을 거느린 증손엄마보고 아직도 아가가 뭐요? 쯧쯧, 주책이 없다는건… 그건 증손엄마가 새로 만든 반찬이라우.》

《거 로친네 말이 많다. 어디 내 좀 맛볼가.》

시할아버지는 웃으며 놋저가락끝에 새빨간 반찬을 찍어 혀에 가져갔다.

《이것 봐라. 달콤하고 매큼하고 짭짤하고 새큼한데다가 향기도 제법인데. 그렇지, 배추에 발라먹어볼가.》

시할아버지는 부루쌈을 먹듯 배추쌈을 먹고나서 《거, 참말 기딱차는구나. 아니, 왜 다들 쳐다보기만 하는거냐? 어서 먹으라는데.》하고 즐겁게 소리쳤다.

너도나도 온 집안이 새빨간 반찬에 저가락을 가져갔다.

《기딱차지? 이 반찬 밥도적 한가지다.》

시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계속 말하였다.

《여러날 먹어봐야 이렇구저렇구 말할수 있겠지만 이 반찬은 보면 삼천리라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이 좋은걸 어떻게 우리만 먹겠느냐. 온 마을에 돌리자꾸나.》

《할아버님 말씀이 지당한 줄 아오이다.》

근달이 제꺽 응수했다.

《장손아비 대답이자 아가대답인줄 알겠다. 그런데 이 반찬을 돌리기에 앞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하물며 잡풀에까지 이름이 붙어있거늘 기딱찬 반찬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아버님께서 이름을 골라주시오이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 내 우리 아가의 어진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 반찬도 장은 장이렷다. 메주를 장독에 담그었다가 짠물을 따라 내면 그게 바로 간장이고 간장뽑고 남은 걸 된장이라 하고 간장을 뽑지 않고 먹으면 무장이고 된장속에 깨를 치면 깨된장이요, 육붙이를 넣으면 육장이라. 이 반찬은 콩이 아니고 찹쌀과 고추가루로 만들었은즉 찹쌀고추장이라 함이 마땅할것이니라.》

방안이 떠나갈듯 갈채가 일었다.

《그럼 찹쌀고추장을 집집들에 돌려라.》

깨끗이 차려입은 김씨네 녀인들은 찹쌀고추장이 가득한 백항아리를 안고 나섰다.

그날 장씨는 혀를 두르며 칭찬하는 동네아낙네들에게 차근차근 찹쌀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었다.

설날부터 김씨네 집에서는 삼시 세끼 밥상우에 새빨간 찹쌀고추장이 빠지지 않았다.

새빨간 고추장으로 입맛을 돌린 시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터로 나갔다.

참말이지 찹쌀고추장은 물려지는 법을 몰랐다. 찬물에 밥을 말아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좋고 부루쌈이면 부루쌈, 산채면 산채, 풋고추에 발라먹어도 밥이 모자라고 생선의 살을 져며 무쳐먹으면 육붙이 반찬이 울고가고 하다 못해 보리밥에 썩썩 비벼먹어도 스리슬쩍 넘어간다.

찹쌀고추장은 세상에 낯을 내밀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당겼다.

개성의 가난한 집 녀인이 어른들께 효도하자고 고심끝에 찹쌀고추장을 만들어낸 그때를 전후하여 여러 고을에서도 특색있는 고추장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여러 고추장들을 구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씨가 만든 찹쌀고추장을 《개성고추장》이라고 불렀다.

한번 맛들이면 이역만리의 머나먼 길을 떠날적에도 꼭 꾸려가야만 하는 조선민족의 진한 향취가 넘쳐나는 개성고추장은 오늘도 그 맛이 여전하여서 세상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끝)

특색있는 민족음식 칡전분떡

칡전분떡은 칡뿌리를 가공하여 얻은 전분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각지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칡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식용가치가 큰것으로 알려져있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 편찬된 《물명고》에는 칡뿌리를 짓찧어 물에 풀어 앙금을 앉히여 말린 가루를 칡전분(갈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는다고 기록되여있으며 《구황보유방》에는 칡전분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여있다.

또한 19세기초에 편찬된 옛 문헌에는 칡이 많았던 어느 한 섬의 백성들이 칡전분을 만들어 겨울부터 봄까지 식량으로 먹은 결과 전염병의 피해를 면하게 되였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동의보감》에는 칡전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증세를 멎게 하고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한다, 어린이가 열이 나면서 명치끝이 트지해지는데 쓴다, 칡뿌리를 캐여 짓찧어 물에 담그었다가 주물러 앙금을 앉히면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물에 풀어 꿀을 타서 먹으면 갈증이 아주 잘 풀린다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겨레가 오래전부터 칡전분을 음식재료와 약재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왔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겨레가 칡전분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음식에는 칡전분떡, 칡전분다식, 칡전분죽, 칡전분국수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칡전분에 여러가지 낟알가루를 섞어 반죽하여 시루에 안쳐 쪄내여 만든 칡전분떡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널리 장려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술에 만취된 현감

술을 몹시 좋아하는 현감이 있었는데 정사를 보지 않고 온종일 술과 씨름을 하였다.

어느날 그가 술에 만취되여있는데 갑자기 한 농군이 찾아와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서 시비를 갈라달라고 청하였다.

현감은 어떤 놈이 찾아와서 내 기분을 잡치는가고 욕설을 하면서 단에 올라가 앉았다.

《어떤 놈이 소란을 피우는거냐? 먼저 끌어내다가 곤장부터 쳐라!》 그는 앞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얼마를 치랍니까?》 역졸이 물었다.

현감은 눈을 게슴츠레 뜨고 3개의 손가락을 펴보이면서 말하였다.

《세사발을 더 치라.》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